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퀼트기법 유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이지은 · 광태기⁺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석사과정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Study on Expression Characteristic of Patchwork Quilt Technique Typ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Ji-Eun Lee · Tai-Gi Kwak⁺*

Master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2017. 3. 19 접수; 2017. 5. 8 수정; 2017. 5. 10 채택)

Abstract

Modern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digital emotional society that could gradually be seen, felt, and enjoyed by the diversification of personal consumption desires due to digital development. Accordingly, in fashion, an original fashion sense that arose out of classical and conventional thinking has become important and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patchwork qui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creative and emotional fashion design by expanding the mental changes that have emerged in modern society to creative areas after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type cases of patchwork quilt technique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examine how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patchwork quilts are expressed in the digital emotion era. This study paralleled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case studies. In the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the theatrical research was centered on literature data. For visual data, website photos were collected, limited to women's clothing among the collections from Fall & Winter 2014 to Spring & Summer 2017. After drawing the expression types of patchwork quilts extract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e design formative factors, the fashion-related expert group analyze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501 photographs in which the patchwork quilt of the designer clothing collection were reflect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expressive types appeared in the order of diversification of techniques and materials, extended dual images, new formative composition, and reconstruction of traditional patchwork. In this study,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patchwork quilt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are analyzed and drawn as variability, compromise, convergence, and playfulness.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variously in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by expanding the interpretation of costume culture.

Key Words: Patchwork Quilt(패치워크퀼트), Emotional society(감성사회), Quilt technique type(퀼트기법유형), Expression characteristics(표현특성)

⁺Corresponding author ; Tai-Gi Kwak
Tel. +82-2-3408-3220, Fax. +82-2-3408-3665
E-mail : kwaktg@sejong.ac.kr

I. 서론

현대 디지털시대는 다양한 사상이나 문화, 정치, 종교, 예술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복잡한 다원주의 트렌드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시·공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새로운 무한대의 융합공간개념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소비 욕구의 다변화로 인해 물질적인 측면을 많이 확보하려는 추세에서 인간 삶의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치 소비와 소비자 참여문화가 확산하면서 국내 브랜드인 '쿠론'과 '루이까뜨르'는 커스터마이징하고 싶은 제품을 선택해 원하는 가족색상과 엠블럼 색상과 패턴, 다양한 패치까지 개성에 맞게 고를 수 있다(정정숙, 2017).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구글에서 키워드로 패치워크관련어를 검색하여 본 결과 패치워크 약 1,800,000개, 패치워크 퀼팅 약 73,000개, 패치워크 패션쇼 39,600개의 순으로 검색조회수가 많고, 특히 패치워크 패션쇼에서도 퀼팅기법을 검색한 자료(구글 검색, 2017)를 살펴보면 약 5,360개로 퀼트 기법이 패션 트렌드의 모티브로 점점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의 전통적인 명품브랜드인 구찌는 밀라노의 프래그샵 스토어에서 재킷과 핸드백에 각종 자수와 패치워크 퀼트기법을 이용하여 고객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customizing service)를 제공하였다. 다른 컬렉션 의상에도 넓혀서 선보일 계획이며 다른 나라로 매장을 확장할 예정이다(구찌, 2016). 이와 같이 현대 패션산업에서는 고전적이고 관습적인 사고에서 탈피한 고급스러운 장식을 통한 입체적인 표면효과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독창적인 소재나 구성 방식의 패치워크 퀼트(Patchwork Quilt) 기법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패치워크 퀼트 기법은 현대 사회의 다양성, 복합적 기능과 같은 맥락으로 문화적 흐름을 패션을 통해 표현하며 과학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패치워크(Patchwork)를 표현기법에 따라 현대패션디자인을 분류·분석한 연구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의 표현특성(김선영,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치워크에 관한 연구(조말희,

2014)에서는 현대 패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패치워크에 대하여 분석하고 패치워크 표현기법을 현대 미술기법과 접목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권진(2011)의 니트웨어에 나타난 패치워크의 이미지 표현특성 연구에서는 문화경계의 소멸로 새로운 형태로 결합된 이미지를 반영하고 분류하여 유목성, 가변성, 통합성으로 구분하였다. 문신애(2003)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특성에서는 시·공간, 문화에 따라 다원성, 절충성, 역사성, 전환성의 특성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현대 디지털 사회에 감성 중심으로 표현되는 패치워크 퀼트의 유형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패치워크 퀼트의 개념을 고찰하여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퀼트 기법의 유형 사례를 분류하고 표현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에 대한 태도와 정신 변화가 현대 패션의 패치워크 퀼트 표현기법으로 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또한 디지털 감성 시대에서 패치워크 퀼트의 미적 특성이 알아보고 지속적인 퀼트를 활용한 보다 수준 높은 패션 컬렉션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패치워크 퀼트의 개념 고찰과 현대 패션에 패치워크 퀼트의 표현기법 유형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 논문들과 국·내외 단행본, 퀼트 전문서적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한 문헌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현대 패션에 패치워크 퀼트의 표현기법 유형과 표현특성을 분석을 위해 국내외 패션전문 인터넷사이트인 www.style.com에서 디자이너의 컬렉션 사진의 패치워크 퀼트가 반영된 사진을 수집하여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최근 3년간 패치워크 퀼트 패션 경향을 알아보고자 2014년 F/W 부터 2017년 S/S 컬렉션까지 여성복으로 한정하였다. 자료 분석에 앞서 디자이너 선정은 연구자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2번 이상 소개되거나 디자이너가 패치워크 퀼트가 반영된 패션이라고 발표한 컬렉션(Collection)과 마리끌레르(Marie Claire), 보그(Vogue), W 코리아 패션사이트와 잡지에디터가 의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패치워크'라고 해설한 디자이너 중 구찌(GUCCI),

발렌티노(Valentino),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빅터&롤프(Viktor & Rolf), 사카이(SACAI), 샤넬(CHANEL),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톰 브라운(Thom Browne), 펜디(FENDI)로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분석한 10개 브랜드는 www.style.com에서 551장을 수집하였다. 2차 분석은 패션 관련 전공 대학원생 중 석사수료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10인의 패션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증 실시하여 패치워크 퀼트로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제외한 최종 501장의 이미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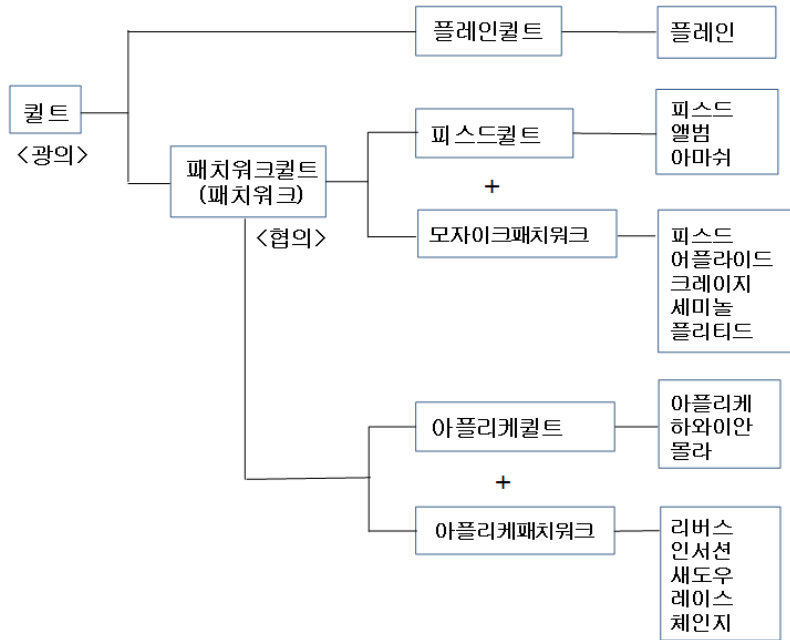
1. 패치워크 퀼트의 개념과 전개

패치워크는 '피싱(Piecing)'의 다른 표현으로,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조각을 연결하여 커다란 직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정수영, 2000). 여러 개의 패치가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해체와 절충을 반복하여 독특한 디자인 요소를 갖는다. 또한 패치워크는 퀼트에 포함된 한 유형이며, 퀼트를 어떻게 유형화하는가에 따라 패치워크의 개념이 정립된다. 퀼트(Quilt)는 라틴어의 '쿨시타(Culcita)' 또는 '쿨시트라'에서 유래 되었으며, 깃털이나 양모 등을 넣은 속을 채운 자루라는 의미이며, 13C 이후부터 퀼트라는 말이 사용되었다(조한열, 1996). 퀼트는 보호하거나 감싸기 위한 것으로 겹감과 안감의 사이에 부피와 탄력성이 있는 솜이나 코드(code)를 넣어 패딩(padding)한 커버나 의복으로 정의한다. 겹감과 안감이 각각 한 장의 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퀼트라고 일컫지만 패치워크나 아플리케(Appolique) 등도 넓은 의미에서 퀼트에 포함한다(송변수, 2000). 패치워크 퀼트는 겹감에 미리 여러 개의 조각 천을 이어붙이거나 덧붙여 놓고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 털, 털실 등을 끼워 누빈 조각 패치워크를 칭한다(Hall, 1989). 이에 많은 사람이 퀼팅과 패치워크가 복합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치워크 퀼트

와 패치워크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패치워크 퀼트로 명칭을 제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퀼트와 패치워크 퀼트를 분류하여 유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퀼트는 작업 방식 따라서 크게 플레인 퀼트(Plain Quilt), 피스드 퀼트(Pieced Quilt), 아플리케 퀼트(Appolique Quilt)로 나눌 수 있다(유보리, 1992). 이를 형태와 발생지역, 구성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표현기법을 고찰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몰라, 하와이안 퀼트와 주술적 기념의 의미를 가진 앨범퀼트와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아마쉬 퀼트는 제외하고 구성방식과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세분화하였다. 패치워크 퀼트는 바느질 기법, 구성에 따라서 형겅이나 가죽 등의 조각을 맞붙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모자이크 패치워크(Mosaic Patchwork)와 천을 원하는 디자인대로 오려낸 후에 바탕이 되는 천위에 덧붙이거나 다른 천으로 레이어드(layered)시켜 구성하는 아플리케 패치워크로 구분된다(서윤주, 2006). 패치워크 퀼트의 구성은 구성방법이나 자수에 의해 형태 안에 장식하거나 형태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방식으로 공그르기 바느질법과 같은 헤링본스티치(herringbone stitch), 끊기지 않는 긴 선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카우징 스티치(couching stitch),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 체인스티치(chain stitch), 천의 섬세한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 쓰는 아우트라인 스티치(ouline stitch), 시접을 촘촘하게 휘감치기하는 버튼홀 스티치(buttonhole stitch)가 있고 기계 스티칭(machine stitching)으로는 지그재그 스티치(zigzag stitch)가 있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사쿠라이 가즈에, 사쿠라이 유코, 2014).

현대에 들어서서 소니아 데로네(Sonia Delaunay, 1885~1979)의 '패치워크 퀼트' 작품은 큐비즘(cubism)에서 벗어난 순수 콜라주(collage) 기법을 이용해 만든 작품으로 바우하우스(Bauhaus)나 추상주의와 기능주의의 환경 속에서 현대감각에 맞는 예술작품으로 섬유예술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유나라, 2003). 1960년대에 들어와 옷과 인테리어에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 1936~2008)에 의해 하이패션으로 소개되면서



〈그림 1〉 패치워크 퀵트와 퀵트의 유형 및 분류

패치워크 퀵트가 인기를 끌게 되었다(문신애, 2003). 현대에 들어와서 패치워크 퀵트는 직물의 평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3차원적 공간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고부가가치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회화, 패션 등 다양한 조형예술 분야에서 수공예적인 패치워크기법으로 확장하여 발전하고 있다.

2. 패치워크 퀵트의 유형

패치워크 퀵트는 여러 개의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자이크 패치워크와 어플리케 패치워크로 분류할 수 있다. 고품격, 고부가가치성을 높이며 개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도형을 반복하여 세밀하고 정교한 수공예적인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평면에서 오는 표현의 한계를 넘어 3차원적 공간처리를 가능하게 되고 새로운 직물의 표현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조형적 영역으로서 확대되고 있다(문신애, 2003).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퀵트기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패치 구성과 표현기법으로 분류하여

모자이크 패치워크와 어플리케 패치워크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1) 모자이크 패치워크

모자이크 패치워크는 여러 소재 조각들을 맞춰 붙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표 1>로 분류하였다. 모자이크 패치워크에는 피스드 패치워크가 대표적이며, 어플라이드 패치워크(Applied Patchwork), 크레이지 패치워크(Crazy Patchwork), 세미놀 패치워크(Seminole Patchwork), 플리티드 패치워크(Pleated Patchwork)로 구분되어 진다. 피스드 패치워크는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원형 등의 일정한 피스를 서로 모티브 형태를 규칙적으로 이어 전체의 문양을 만드는 기법이며, 기본 단위가 되는 패턴을 경우에 따라서 색상과 명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배치, 강조, 점층 등을 이용하여 울동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소재와 다른 기법을 접목하는지에 따라 응용범위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모자이크 패치워크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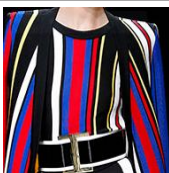
분류	종류	구성방법	대표이미지	현대패션의 모자이크패치워크퀼트의 활용
모자이크 패치워크	피스드	같은 형태의 기본 피스를 연결하는 것	 <p>(출처: Contemporary Quilts form Traditional Designs)</p>	 <p>(출처: www.style.com)</p>
	어플라이드	서로 다른 형태나 유사한 형태의 피스들을 연결하는 것. 장식용으로 쓰이며, 빈 공간에 수를 놓거나 술기를 시침질하여 변화를 주는 기법	 <p>(출처: Patchwork)</p>	 <p>(출처: www.style.com)</p>
	크레이지	질감이 다르고 불규칙한 형태를 지닌 형겁조각을 모아서 천과 대조되는 실을 이용하여 꿰매는 기법	 <p>(출처: home.comcast.net)</p>	 <p>(출처: www.style.com)</p>
	세미놀	블록보다 더 작은 조각들을 이어 스트라이프 형태의 연속무늬가 생기는 것에 중점을 둔 것.	 <p>(출처: The Folkwear book of Ethnic clothing)</p>	 <p>(출처: www.style.com)</p>
	플리티드	평면의 패치워크 위에 프리즈나 텍으로 입체적 표면효과를 주는 기법	 <p>(출처: The Quilting patchwork & Applique Project Book)</p>	 <p>(출처: www.style.com)</p>

2) 아플리케 패치워크

아플리케 패치워크는 ‘접는다, 고정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라틴어의 ‘아플리케어(applicare)’에서 유래되었다. 아플리케기법 패치워크는 천을 원하는 디자인대로 오려낸 후에 바탕이 되는 천 위에 덧붙이거나 오려낸 부분을 다른 천으로 막아 레이어드 시켜 구성하는 방법이며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아플리케 패치워크는 중남미

파나마 지역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화려하고 강렬한 문양의 패치워크 기법 ‘몰라 패치워크(Mola Patchwork)’로 하는 여러 색상의 천을 가위로 파내려가면서 위의 천을 아래의 천에 부착시키거나 다른 천에 덧붙이는 기법의 리버스 패치워크(Rverse Patchwork), 인서션 패치워크(Insertion Patchwork), 새도우 패치워크(Shadow Patchwork), 레이스 패치워크(Lace Patchwork), 체인지 패치워크(Change Patchwork)로 세분화된다. 아플리케

<표 2> 아플리케 패치워크의 분류

분류	종류	구성방법	대표이미지	현대패션의 아플리케패치워크퀼트의 활용
아플리케 패치워크	리버스	보통의 아플리케 하는 방법을 거꾸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색색의 가벼운 천을 여러 겹 쓰는데, 디자인외곽선대로 천을 잘라내는 것	 (출처: bewitchedbystitch.blogspot.com)	 (출처: www.style.com)
	인서션	바탕 천 사이에 다른 소재를 삽입하는 기법	 (출처: 니들 아트)	 (출처: www.style.com)
	새도우	화려한 색상의 퀼트를 얇은 천 사이에 장식하며 중앙의 디자인에 하나의 작은 조각의 가장자리나 거의 모든 디자인의 가장자리에 펠트를 삽입하여 꿰매는 것	 (출처: www.handicraftsbypege.com)	 (출처: www.style.com)
	레이스	망사나 레이스 모티브를 바탕천 위에 놓고 윤곽을 버튼홀스티치나 새틴스티치 하는 기법	 (출처: 니들 아트)	 (출처: www.style.com)
	체인지	모티브가 바탕과 정확히 반대편이 되도록 다른 쪽의 모티브로 쓰고 다른 쪽의 바탕천은 이쪽의 모티브로 쓰이는 것.	 (출처: www.batik.co.nz)	 (출처: www.style.com)

패치워크의 기법은 작은 조각의 다양한 소재 등을 디자인에 맞게 다양한 무늬로 재단하고 그것들을 바탕천 위에 놓고 가장자리 라인을 따라 버튼홀 스티치나 아우트라인 스티치 등의 바느질법을 활용하여 덧붙이는 방법이다. 어플리케는 표면장식기법이며, 천을 잘라내는 방법이나 덧붙이는 방식의 콜라주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영역부터 소재와 스티치 등 패치의 해체와 절충으로 인한 결합에서 오는 조형적 표현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로 나타났다.

3. 패치워크 켈트의 표현유형

현대 사회의 다원 복합적이고, 물질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며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부합하기 위해 복합 감성적인 패치워크 켈트를 활용하여 다양성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패치워크의 유형 표현 특성을 권진(2011)은 패치들의 시·공간, 소재와 텍스타일 해체와 절충, 패치의 구성과 조합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선영(2009)은 형태, 색채, 기법의 표면효과, 기법과 소재의 절충적 표현, 이미지 모방과 편집으로 분류하였다. 조말희(2014)는 패치워크의 유형 표현 특성을 기하학적 형태를 시각화한 면 구성, 불규칙한 형태(선, 입체)의 면 분할, 기법과 소재의 다양성으로 분류하였으며, 문신애(2003)는 스타일·소재사용의 다양화, 이국적 요소의 도입과 복합오브제와 재료사용, 복고적 실루엣과 장식의 사용과 전통 패치워크 문양의 응용, 새로운 형태와 혁신적인 소재의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패치워크의 유형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 기법의 유형 기준을 디자인의 조형요소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법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다른 기법과 복합적 사용, 기법과 소재의 다양성, 복합 오브제와 재료 사용, 형태와 기법의 표면적 회화적 표현은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로 도출하였다. 둘째, 이국적 요소 도입, 패치워크의 소재와 텍스타일의 해체와 절충은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로 도출하

였고 셋째, 복고적 실루엣과 장식의 사용과 전통 패치워크의 문양 응용, 전통적 패치워크의 활용은 전통 패치워크의 재구성으로 도출하였다. 넷째, 새로운 형태와 소재 사용, 불규칙한 형태, 패치의 구성과 조합, 기하학적 형태의 면 구성은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구성으로 도출하였다.

Ⅲ. 현대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 기법유형의 표현특성

1.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의 표현유형특징

현대 사회에서 패션은 시대정신을 대표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로 다양한 소재와 기법이 응용되고 있다. 의복의 표면효과 방법의 하나인 패치워크 켈트 표현기법은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관념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 패션디자인에 다양한 표면효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패션디자이너들에게 풍부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한 표현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

오늘날 이질적인 소재의 적용과 디지털 발달에 시각적 기법의 다양화는 서로 다른 소재의 재질감 강조와 기법개발로 장식적 표현 및 조형적 표현영역으로 확대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디지털 발달로 인해 감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사고의 변화와 개성이 중시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면의 재질표현이 느껴지는 촉각적 텍스처(Tactile Texture)로 다양한 색채와 소재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과 어플리케 패치워크가 많이 사용되었다. 버버리 프로섬 2015 F/W 컬렉션의 <그림 2>는 현대적인 심플한 실루엣에 리버스 패치워크와 세미늘 패치워크의 전통적인 패치워크에 이국적 문양을 콜라주와 편칭기법을 이용하여 회화적 표현으로 절충성을 표현하였다. 준야 와타나베 2014 F/W 컬렉션의 <그림 3>은 모노톤의 다양한 소재로 콜라주하여 크레이



〈그림 2〉 Burberry Prorsum
2015 F/W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burberry-prorsum/slideshow/collection#50>)



〈그림 3〉 Junya Watanabe
2014 F/W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12>)



〈그림 4〉 Thom Browne
2016 S/S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5/09/15/ready-to-wear-2016-ss-thom-browne-collection/#0:12>)



〈그림 5〉 Gucci 2016 S/S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5/09/24/ready-to-wear-2016-ss-gucci-collection/#0:6>)



〈그림 6〉 Alexander Wang
2015 S/S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alexander-wang/slideshow/collection#19>)

지 패치워크 어플리케로 현대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구조적 질서와 혼돈, 경제발전으로 인한 팽창과 긴장을 불규칙한 형태로 신체의 본연의 실루엣이 아닌 비규칙적인 나무에 풍성한 나뭇잎과 열매가 매달린 것 같은 이미지로 유희성과 전환성을 자극하였다. 톰 브라운 2016 S/S 컬렉션의 〈그림 4〉는 서양적인 클래식한 슈트에 솔기를 밖으로 박음질하여 촉각적 대비를 이루며 동양적 느낌과 빈티지한 이미지의 전환성을 나타

내고 있다. 색채와 명도만으로 입체감을 나타내는 시각적 텍스처(Visual Texture)로 트롱프뢰유(Trompe l'oeil)가 많이 사용되었다. 구찌 2016 S/S 컬렉션의 〈그림 5〉 의상은 스카프의 러플 느낌을 비즈로 어플라이드 패치워크하여 스카프를 착용한 것과 같은 트롱프뢰유 기법을 이용한 착시효과로 키치스러운 색상표현으로 재미를 줌으로써 유희성을 표출하였다(SARAH MOWER, 2015). 알렉산더 왕 2015 S/S 컬렉션의 상의 〈그

림 6)은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을 해체, 재조합이나 변형을 통하여 각 패치의 영역이 고정되지 않고 진화하는 형태로 기능성을 겸비한 에슬레저룩(Athleisure Look)을 선보였다. 에슬레저는 ‘에슬레틱(Athe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이다. 일상복으로 어색하지 않으면서 운동복처럼 편하고 활동성이 있는 스타일로 다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가변성을 표현하였다(권정숙, 2016).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는 촉각적인 텍스처와 시각적인 텍스처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가변성, 절충성, 전환성, 유희성으로 표출되었다.

2)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

현대 패션의 패치워크 켈트에서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는 패턴들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적 형태로 보이는 표현유형이다. 디지털의 발달로 인하여 개별적 특성이 있는 개체들이 패치워크 되면서 장식적 특성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키는 탈중심(transcend axis)적인 소재의 패턴 반복과 확장, 중첩되고 공간의 확장되면서 또 다른 패턴구조로 표현되거나, 서로 다른 의상 형태를 해체, 결합을 통해 의상의 위치 전환과 이미지의 중첩으로 경계 모호성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개별적 특성이 있는 개체들이 패치워크 되면서 중첩으로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

키는 탈중심적인 소재의 패턴 구조로 분명한 느낌을 주지 않는 다의적인 공간(Equivocal Space)으로 표현하였다(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2002). 여러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탈 장르, 탈 해체되고 있는 사회현상처럼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공간감과 깊이감을 보여주고 있다. 빅터 앤 롤프 2014 F/W 컬렉션의 <그림 7>에서 보이는 의상은 스트리트 패션에 투명한 소재와 불투명한 소재의 조합으로 크기 변화를 주어 각각을 연결하고 중첩하는 형태미를 나타냈다. 펜디 2016 S/S 컬렉션의 <그림 8>은 투명한 소재와 반투명한 소재를 이용하여 기하학적 모티브를 반복 중첩의 원리로 연결하여 투명함 속에서 비침으로써 깊이감이 표현되어 더불어 공간감이 형성되며 조화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패치들이 배열이나 구성의 중첩과 변화에서 패치들의 상호작용하며 가변성을 표현하고 있다. 샤넬 2016 S/S 컬렉션의 <그림 9>는 종이를 접어서 표현하는 오리гами 기법으로 패치들의 배열이나 구성의 중첩과 변화에서 패치들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예상하지 못한 효과로 새로운 독창적인 미를 찾아내는 전환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는 서로 다른 의상 형태를 해체와 결합을 통하여 의상의 위치 전환, 중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개별적 모티브로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조각들이 패치워크라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화된 소재로 전이되면서 다 중심 모티브



<그림 7> Viktor& Rolf 2014 F/W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viktor-rolf/slideshow/collection#25>)



<그림 8> FENDI 2016 S/S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6/06/03/resort-2017-ss-fendi/#0:7>)



<그림 9> CHANEL 2016 S/S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chanel/slideshow/collection#89>)



〈그림 10〉 Thom Browne 2016 F/W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thom-browne/slideshow/collection#25>)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톰 브라운 2016 F/W 컬렉션의 의상 〈그림 10〉은 재킷을 해체하여 신체 안에 남녀의 이미지가 공존하고 의복의 위치전환으로 기존 부분 생략, 중첩으로 비논리적이고 모호한 정체성을 보여주며 일탈의 전환성을 나타내고 있다(김순자, 2016). 사카이 2014 F/W 컬렉션의 〈그림 11〉과 같이 남자 느낌의 오버사이즈에 여자의 실루엣을 가미하였으며, 재킷에 따뜻한 느낌의 스웨터를 패치워크하여 이질적인 소재의 이블 니트 슬리브를 추가하거나 면과 포플린과 결합하여 해체·조합으로 클래식과 핑크적 요소를 표현하였다(NICOLE PHELPS, 2014). 이를 통하여 여러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탈 장르, 탈 중심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절충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장되는 이중적인 이미지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그나 패턴에서 벗어난 독특한 재단법 등을 통하여 가변성, 절충성, 전환성으로 도출되었다.

3) 전통 패치워크의 재구성

현대 패션의 패치워크 켈트에서 전통 패치워크의 재구성은 역사적·민속적인 요소로 문화코드의 패션 경향과 디자이너의 영감과 결합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표현 수단이다. 디지털 감성 시대에 이국적 요소인 모티브와 스타일을 다양한 크기로 조합하여 사회·문화적인 상호 연관성을



〈그림 11〉 SACAï 2014 F/W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sacai/slideshow/collection#19>)

표현하였고, 과거의 복식을 모방하여 재조합하거나 전통과 역사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표출하였다. 패치워크 켈트에 가장 많이 나타난 표면효과는 기하학적 형태의 크기와 방향 또는 간격의 변화에 의한 반복 및 규칙적인 질서로 표현된 면구성이다. 알렉산더 왕 2016 F/W 컬렉션의 〈그림 12〉는 안정감을 주는 마름모의 형태를 인서션 패치워크로 면구성하여 반복적인 리듬감을 생성하며 이질적인 소재와 색상에서 명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안정감과 스포티한 리듬감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절충성을 표현하고 있다. 발렌티노 2014 F/W 컬렉션의 〈그림 13〉은 반복·구성의 패치워크를 이용하고 술기를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하위문화 스타일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과거 70년대 레트로 로맨틱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샤넬 2015 S/S 컬렉션의 〈그림 14〉와 톰 브라운 2017 S/S 컬렉션의 〈그림 15〉는 미니멀 아트에서의 전통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선과 면의 순수 조형적 패턴상 단순성을 유지하며 시각적으로 변화와 질감으로 입체적인 착시효과를 주는 옵아트(Op Art)로 사그의 전환을 표현하고 있다. 버버리 프로섬 2016 F/W 컬렉션의 〈그림 16〉은 영국의 전통적인 재료인 클래식한 체크문양 및 기하학적이고 기본적인 문양인 육각형, 직사각형 등의 형태로 색상과 명도 차이를 이용하여 붙임으로서 직조에 의한 무늬보다 직조보다 고급스러운 효과로 가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 12〉 Alexander Wang
2016 F/W

(출처: <http://runway.vogue.co.kr/2016/02/14/ready-to-wear-2016-fall-alexander-wang-collection/#0:30>)



〈그림 13〉 Valentino
2014 F/W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valentino/slideshow/collection#49>)



〈그림 14〉 CHANEL
2015 S/S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chanel/slideshow/collection#81>)



〈그림 15〉 Thom Browne
2017 S/S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thom-browne/slideshow/collection#2>)



〈그림 16〉 Burberry Prorsum
2016 F/W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burberry-prorsum/slideshow/collection#137>)

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패치워크 퀴트에서 전통 패치워크의 재구성은 가변성, 전환성, 절충성으로 도출되었다.

4)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구성

현대 패션에서 패치워크 퀴트의 새로운 형태 구성은 디지털의 발달로 점(Dot)이 수학적 오브젝트에 정의된 선인 벡터(Vector)로 무한한 세계

에서 모티브를 얻어 각도를 다르게 재구성하여 물질적 이성사회에서 감성중심의 넘어가는 사회에서 문화적 흐름을 잘 반영하여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된 형태의 절단과 다양한 중첩으로 인한 역동성과 접합에 의한 공간의 극대비적인 다양한 조형적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톰 브라운 2015 S/S 컬렉션의 〈그림 17〉 의상에서 퓨처니즘과 강인함이 연상되는 메탈소재로 패치워크를 각도에 따라 형태를 만들어 모든 선과 점이 상호



〈그림 17〉 Thom Browne
2015 S/S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thom-browne/slideshow/collection#21>)



〈그림 18〉 Junya Watanabe
2015 S/S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9>)



〈그림 19〉 Junya Watanabe
2017 S/S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5>)



〈그림 20〉 Junya Watanabe
2016 S/S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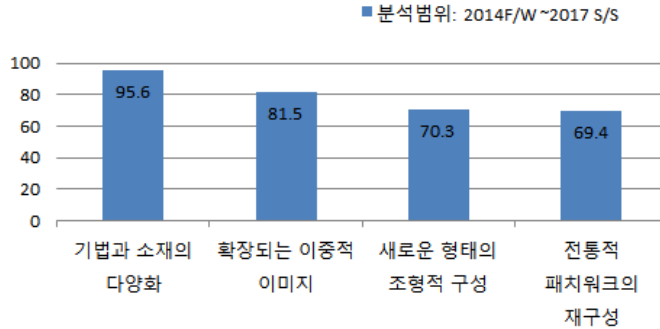


〈그림 21〉 Viktor& Rolf
2016 S/S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couture/viktor-rolf/slideshow/collection#20>)

결합되면서 조형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여성성과 고전미의 플레어스커트를 동시에 연출하여 과거와 미래의 동시대적 이미지를 보여주며 전환성을 표현하였다. 준야 와타나베 2015 S/S 컬렉션의 〈그림 18〉는 원을 다양하게 해체하여 재배치함으로써 의외성과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유희성을 표출하고 있다. 준야 와타나베 2017 S/S 컬렉션의 〈그림 19〉는 하나의 패치가 종이 접이의 오리가미 구성으로 연결되어 반복, 확장되면

서 3차원에서도 조형적으로 기하학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패턴에서 벗어나 파편화된 요소를 통합하여 한정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유기적인 순환체계이다. 이는 자기표현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과 연관되어 가변성으로 표현된다. 준야 와타나베 2016 S/S 컬렉션의 〈그림 20〉은 기하학적 패치가 각도와 선을 달리하여 반복 접합과 배치됨에 따라 형태가 융합하



〈그림 22〉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기법의 유형별 분포

여 비정형적인 형태로 가변되며 공간이 생성·확장되고 있다. 빅터 앤 롤프 2016 S/S 컬렉션의 〈그림 21〉은 한 가지 소재의 회화의 앗상블라주(asssemblage)기법을 응용하여 각각의 피스들을 어플리케이션하여 하나의 왜곡된 유선적 형태로 관습적 형태를 파괴하며 전이공간(transfer space)인 3차원적이며 초현실주의적 성향을 표현하며 전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패치워크 켈트로 표현된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구성은 가변성, 유희성, 전환성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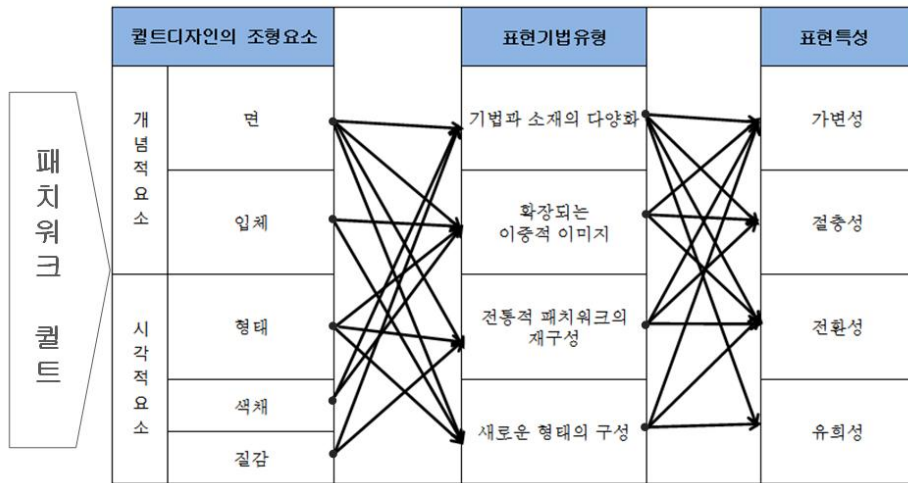
위와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 기법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조형요소를 기준으로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표현유형은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 전통 패치워크의 재구성,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www.style.com에서 2014년 F/W에서 2017 S/S의 컬렉션 의상까지 총 501장의 사진 분석 결과, 〈그림 22〉에 정리된 것과 같이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 479장(95.6%),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 408장(81.5%),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구성 352장(70.3%), 전통 패치워크의 재구성 348장(69.4%) 순으로 나타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여러 가지 표현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중복표기 방법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성 사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감성 중심사회의 질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다양성과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패션에서도 패치워크 켈트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감성 시대의 특징이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 기법 유형의 표현특성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현상들은 표현수단의 하나로 끊임없이 현대인들의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이러한 경향 아래 패치워크 켈트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 기법의 유형은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 전통 패치워크의 재구성,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구성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패치워크 켈트 기법의 유형을 기반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치워크 켈트의 표현특성은 가변성, 절충성, 유희성, 전환성으로 도출되었으며 〈표 3〉와 같이 정리하였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 기법 유형의 표현 특성은 첫째, 패치워크 켈트로 표현되는 가변성은 변형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현대 패션을 조형 예술적 표현이 가능함과 동시에 획일화된 복식에서 예술과 조화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술에 발달 다양한 색채구현 및 이질적인 소재의 재질표현으로 인한 촉각적 텍스처와 색채와 명도만으로 입체감을 나타내는 시각적 텍스처의 표면효과로 남과 여, 시대와 동·서양의 복식 혼재로 일반적인 패션의 한계를 넘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각각 분리된 패브릭들이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구성된 가변성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현대 패션에서 표현한 패치워크 켈트의 절충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와 양식과 개념들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심리적 감성디자인

〈표 3〉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의 기법유형 및 표현특성도출



의 모티브로 새롭게 결합하여 재구성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재창조하는 패치워크 작업을 통해 소재의 다양화 및 재질감을 강조되며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로 경계가 모호해지며 패션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치워크 켈트로 표현되는 전환성은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간의 상호결합을 통해 자유로운 면 구성으로 구체적인 형상이나 추상적인 형상을 만들어 전환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각도와 구상으로 전개된 형태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다양한 소재와 다른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공간감을 주고 변화 있는 깊이 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획일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극단적인 실험적 현대 예술로서 전통적인 형태의 복식이나 문양을 해체하여 용도를 전환·과장하거나 삭제하는 표현방법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희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유로운 사고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무겁고 심각한 것을 회피하고 가볍고 익살스러운 키덜트(kidult) 요소인 흥미, 감흥, 유머 등의 감성과 사회상을 풍자한 패러디, 키치 등의 감성을 통해서 유희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동시에 재미와 감동을 추구함과 동시에 실용성과 효율성을 갖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유희성은

의복에 패치워크하여 실제로 있는 의복의 디테일로 표현하거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착시로 전통 사회 관습에서 해방을 유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형을 해체하여 재배치함에 있어서 의외의 효과가 나타나 조화속의 부조화를 보여줌으로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다차원적 표현으로 현실을 풍자하고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의 개념과 기원을 고찰하고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근거로 선행연구에서 패치워크 켈트의 기법의 표현유형을 분류하고 표현특성을 분석하여 패션 디자인 영역에서 창작 영역까지 확대하여 창조적인 패션산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의 조형요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 기법의 유형을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구성, 전통 패치워크의 재구성 순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패치워크 켈트 기법의 표현유형들을 2014년 F/W 이후 현대 패션 컬렉션 중 패치워크 켈트 기법이 사용된 디자인 사진을 연구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는 디지털과 기술의 발달로 색채와 명도의 차이로 인한 시각적 텍스처로 나타나며 획일화된 오브제에서 다양한 소재와 기술발달로 인하여 촉각적 텍스처가 개성이 중시되며 변화하는 감성 사회로 표현되고 있다.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는 패치들의 반복과 확장, 중첩되어 공간감과 깊이감을 표현하며 다원적 공간을 형성하고 상반되는 이미지들의 해체와 결합과 위치전환으로 인하여 경계가 모호해지며 확장되는 이중성을 표현하였다. 전통 패치워크의 재구성은 시공간을 넘어 이국적인 모티브와 전통적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크기와 방향 또는 간격의 변화로 재구성하여 시각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구성은 기존의 미학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를 추구함으로써 패치의 각도 다변화를 통한 확장 현상으로 비정형화된 조형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패치워크 켈트 표현유형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켈트의 표현특성은 가변성, 절충성, 유희성, 전환성으로 도출되었다. 가변성은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를 통한 시·촉각적 텍스처로 회화적인 표현과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구성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가변성은 획일화된 복식에서 탈피하여 패션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절충성은 소재와 기법의 다양화로 재질감을 강조되며 디지털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해체와 조합을 통한 탈문화·탈장르성으로 확장되는 이중적 이미지로 보여졌다. 또한, 시·공간과 문화 등 다양한 양식의 혼합으로 사과의 전환과 개성 표현의 추구 현상으로 나타나며 디자인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 유희성은 유머와 개성을 통하여 마음의 해방과 자유로움을 표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소재나 기법을 통하여 사실적인 착시효과를 주거나 도형을 해체하여 이질적 요소의 재배치함이나 기하학적인 도형의 중첩을 통한 이외의 효과로 표출되었다. 전환성은 기하학적 형태들이 상호결합을 통해 구체적이나 추상적 형상의 면 구성으로 새로운 형태의 구성을 표현하였다. 혹은 전통적인 형태의 문양을 인용하여 복식 해체 또는 용도를 전환·과장, 삭제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패치워크 켈트는 단순한 장식기법의 개념을 넘어선 인간의 의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변천해온 새로운 조형예술로서 현대 패션에 독창적인 감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켈트패션의 경향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켈트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개발의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수준 높은 패션 컬렉션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컬렉션 사진을 통해 분류, 분석함으로써 소재와 색상의 식별에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로 보다 다양한 컬렉션 자료를 이용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이다.

참고문헌

- 권진. (2011). 현대 니트웨어에 나타난 패치워크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3), 68-81.
- 권정숙. (201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슬레저의 특성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8(4), 101-116.
- 김선영. (2009). 현대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의 표현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7(3), 1-9.
- 김순자. (2016). 모호성의 관점에서 본 마틴 마르지엘라 패션디자인 특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8(2), 191-206.
- 데이비드A. 라우어, 스티븐 펜탁. (2002). *조형의 원리*(이대일 역). (초판 5쇄). 서울: 예경.
- 문신애. (2003).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사쿠라이 가즈에, 사쿠라이 유코. (2014). *자수스티치 220*(김현영 역). (초판 2쇄). 서울: 싸이프레스.
- 서운주. (2006).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 특성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변수. (2000). *현대섬유미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 유나라. (2003). *패치워크 패턴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보리. (1992). *서양전통패치워크문양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편). (1990). *니들아트*. 서울: 경춘사.

- 정수영. (2000). *패치워크 구성방법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연구 -혼합기법에 의한 질감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IY 특수 '신바람'...“포미족을 잡아라”, 한국섬유신문. 자료검색일 2016. 4. 19, 자료출처 http://www.knews.com/sub/view.php?cd_news=102602
- 조말희. (201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치워크에 관한 연구. *패션과 니트*, 12(1), 40-50.
- 조한열. (1996). *퀼트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 패치워크 패션쇼 퀼팅기법, 구글. 자료검색일 2017. 4. 26, 자료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q=50%EB%8C%80+%EC%97%AC%EC%9E%90%50%EB%8C%80+%EC%97%AC%EC%9E%90%>
- Caron, L. Mose. (1988). *Contemporary Quilts form Traditional Designs*. N.Y : E. P. Dutton.
- Hall, Dorothea. (1989). *The Quilting patchwork & Applique Project Book*. London : Chart well Books, Inc.
- GUCCI DIY SERVICE, GUCCI. 자료검색일 2017. 2. 9, 자료출처 https://www.gucci.com/us/en/st/stories/article/agenda_2016_diy_london_rtw
- Parker, Mary S. (2002). *The Forkwear Book of Ethnic clothing*. N. Y: Lark Books.
- SPRING 2016 READY-TO-WEAR GUCCI, vogue . 자료 검색일 2017. 4. 21, 자료출처 <http://www.vogue.com/fashion-hows/spring-2016-ready-to-wear/gucci>
- SPRING 2016 READY-TO-WEAR SACAI, vogue. 자료 검색일 2017. 4. 21, 자료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sacai>